

## 국민 70% “한미관계 미국 안보 강화”

미국인 열 명 중 일곱 명은 한미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생각하며 주한미군 증강·유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18세 이상 미국인 2천 5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70%는 ‘한미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답했다.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이같이 응답한 비율은 74%, 민주당 지지 응답자 중에서는 70%,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68%여서 지지 정당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이 단체는 매년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데, 한미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은 올해 처음 들어갔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 12%는 ‘증강해야 한다’, 57%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감축해야 한다’는 16%, ‘철수해야 한다’는 13%였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8%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63%, 민주당 57%,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56%가 찬성했다.

한국의 영향력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10점 만점에 5점으로 2018년 4.8점, 2017년 4.5점이었다. 러시아는 6.7점, 일본은 6점, 인도는 5.2점 등이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으나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들을 방위비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 접점으로 써왔으며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문제 제기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 대중의 지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2.3%포인트다.

## 작년 신규 취업, 유색인종 백인 추월

지난해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히스패닉을 포함한 유색인종의 신규 취업자 수가 백인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10일 ‘경향신문’이 워싱턴포스트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취업한 미국 핵심생산인구(25~54세) 중 히스패닉을 포함한 유색인종의 숫자가 백인을 넘어섰다. 1990년대 ‘유색인종 30 대 백인 70’이던 신규 취업자 비율이 꾸준히 격차를 줄이더니 마침내 역전을 이뤄낸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백인 베이비붐 세대(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태어난 세대의 대거 은퇴와 맞물리면서 미국 일자리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2016년 말보다 520만 명이 늘었는데, 유색인종 취업 붐에 백인들의 은퇴까지 반영하니, 그중 450만 명이 유색인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색인종 일자리가 늘어난 배경과 현실을 따져보면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는 육아와 살림 하던 유색인종 여성들이 새로 직업을 찾으려 나선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색인종 여성들이 현재의 자산과 소득만으로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맞벌이에 나

섰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전형적인 백인 가정은 평균 17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이 가지고 있지만 흑인이나 히스패닉 가족은 자산이 평균 2만1,000달러 미만이다. 이들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확장정책에 힘입어 취업시장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후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다양한 직업 교육도 유색인종들에게 도움이 됐다. 특히 히스패닉들은 가정 내 문화의 변화와 높은 교육열, 스페인어에 능통한 강점도 크게 작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히스패닉계 미국인 중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비율은 2006년 59%에서 72%로 증가했다. 대학 입학률은 1996년에 비해 3배 늘었다. 히스패닉이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취업 공고에 ‘스페인어가 요구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도 크게 늘었다.

관건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위기에 빠져도 유색인종들의 저임금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는지이다.

경제학자 메리엔 워너메이커는 “저소득층, 저학력층에서 취업이 많이 늘었다.”며 “이들은 경제가 둔화할 경우 해고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했다.

### 청해 선생과 풀어 보는 한주간의

9월 16일 ~ 9월 22일, 2019년

## 띠별 운세

청해 역학 학술원(淸海易學學術院)  
예약전화: (714) 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남자 길일 : 16, 17, 20, 21

여자 길일 : 18, 19, 22



**쥐**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격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고, 하는 일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정치가는 개혁을, 사업가는 확장을 하기에 좋은 운세입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늘리는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에 좋은 시기이지만 올바른 길을 찾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금전○애정○건강△



**말**  
얼어붙은 땅 위에서 새싹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과 양이 화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과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때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지 말고 뜻을 펼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으면 망설임 없이 도와주어야 나중에 복록이 되어 돌아옵니다.  
금전○애정○건강△



**호랑이**  
진귀한 신선의 약을 얻으며,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운세입니다. 계획하는 일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면 예상 밖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화단결이 중요합니다.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처세하여야 합니다. 낡은 것보다는 새롭고 참신한 것에 뜻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양**  
지금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실력을 기르면서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면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저절로 복록이 따를 것입니다. 혹 어려움이 생기면 믿을 만한 윗사람인 동료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세요. 중용을 지키면 작은 일은 뜻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곰**  
작은 일을 도모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에 힘쓰고 언행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평소 애정적인 교분을 두텁게 해두면 나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문제점은 미리 알아서 해결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매사에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은 결실이 뒤따릅니다.  
금전○애정○건강△



**원숭이**  
행동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법이니, 많아서 넘치는 것이 있으면 모자라는 곳에 떨어 주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겸양의 도는 어디에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니,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토끼**  
직장인은 승진하고 학생은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업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분쟁이 일어 나기 쉬우니, 겸손하고 관대하게 처세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금전○애정○건강○



**닭**  
전장에 나가는 용맹한 장수처럼 기세가 강건하지만, 한편으로 기고만장해지기 쉬우니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있거나 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건실하고 명쾌하게 대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승진하게 되는 운세입니다.  
금전○애정○건강△



**용**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유망한 사업을 발견한다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땅을 파서 금을 얻듯이 머지않아 마음껏 활약할 때가 올 것입니다. 특히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방황하던 사람은 금의환향하고, 술한 시련을 겪어 온 상황이라면 드디어 뜻을 이루고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애정○건강○



**개**  
정상적인 궤도를 지키고 중도를 지켜야 길할 것입니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분주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말고, 사소한 문제는 보류하며 다른 사람의 협조를 구하거나,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착하게 대처하면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금전○애정○건강△



**돼지**  
겉모습에 치중하게 되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못하면서도 화려한 생활을 바라기 쉽습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실속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일은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냉철한 이성으로 앞일을 설계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목적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



**돼지**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서히 일이 풀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뎌 내면 뜻밖의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삼가고 검소한 덕으로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은 복록이 생길 것입니다. 명예와 재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분수를 지키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금전△애정○건강○